

numbers 제 41호



주요 내용

2020. 04.02

1.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2. '대한민국의 선택과 필수'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일반사회통계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요즘 세간에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일명 박사방, 혹은 n번방 사건)이 화제이다. 이 사건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심각한 범죄이다.

인간은 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폭력 없는 세상은 없다. 폭력은 사이버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폭력 행위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금해야 할 행동이지만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고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 폭력적 양상이 더 극렬해지고 있다.

[넘버스] 41호에서는 사이버 폭력 현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사이버 폭력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폭력의 가해자는 어떤 동기에서 왜 폭력을 가하는지, 피해자는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고 대처하는지를 살펴 보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회의 대응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사이버 폭력'의 정의 | 사이버(인터넷+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 폭력, 명예 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임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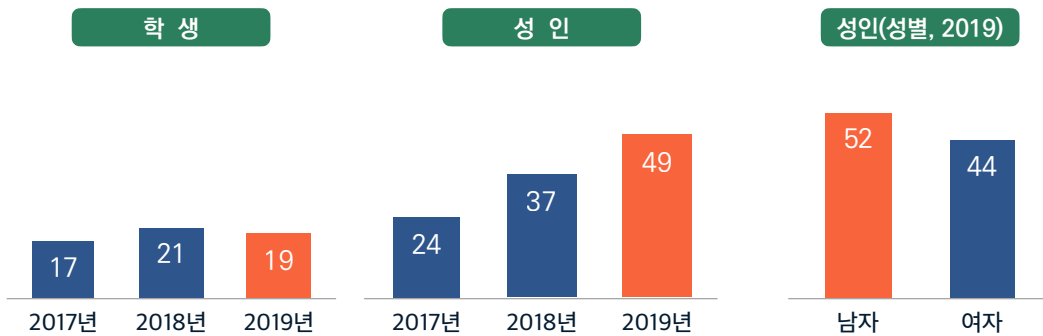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우리 국민(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있다'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이버 상에서의 2019년 폭력 피해 경험률(최근 1년 이내)은 19%인데 반해, 성인은 무려 49%로 학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7년 24%에서 2019년 49%로 2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성인의 성별 피해 경험률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험률이 더 높음

[그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최근 1년 이내, 연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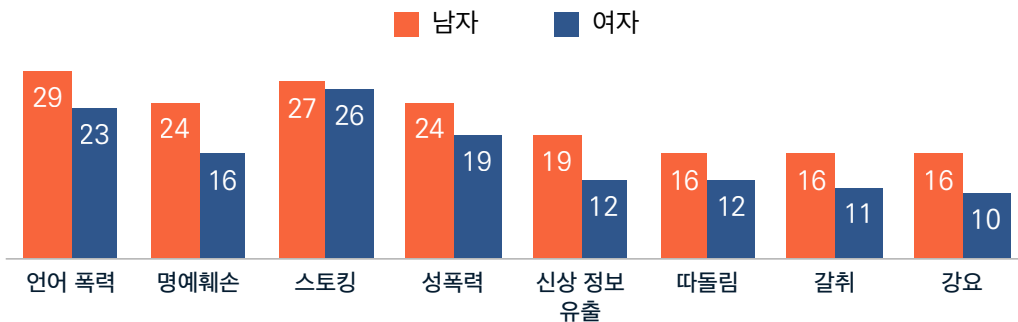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19.12.
(전국 초중고생 4,779명/우편 조사 + 만20~59세 성인 1,500명/온라인 조사, 2019.10~11)

● 사이버 폭력 피해, 성인 여성 '스토킹'이 1위!

- 성인의 사이버 폭력 피해 8가지 유형 중 남성의 경우 '언어 폭력'이, 여성은 '스토킹'이 각각 1위로 나타남
- 학생은 '언어 폭력' 피해 경험이 17%이고 다른 유형은 6% 이하로 언어 폭력 피해에 집중되는 반면, 성인은 '언어 폭력',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등 학생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

[그림]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최근 1년 이내, 2019년,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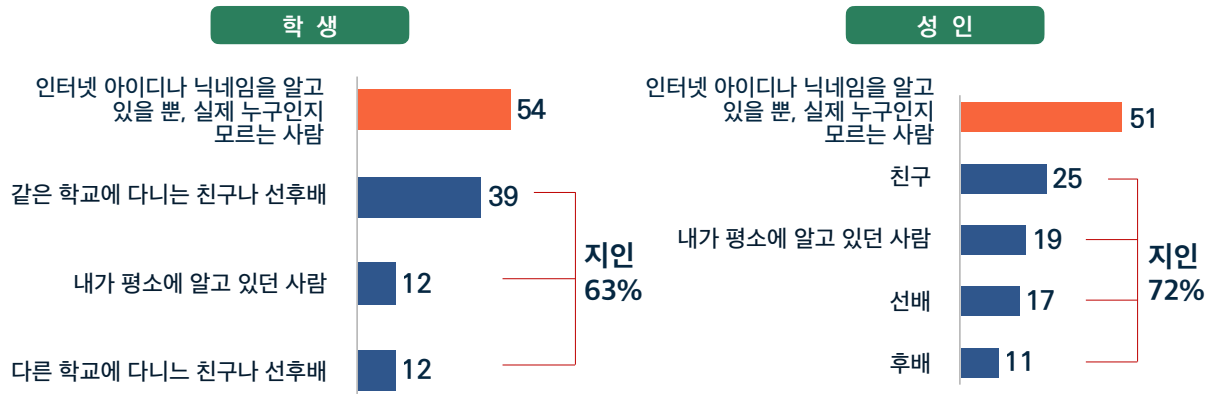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19.12.(전국 만20~59세 성인 1,500명/온라인 조사, 2019.10~11)

2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주변 지인!

- 학생과 성인 모두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는 ‘친구/선후배’ 등 친분이 있는 관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험도 학생이 54%, 성인이 51%로 절반이 넘음

[그림] 사이버 폭력 가해자(피해자 대상,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907명, 우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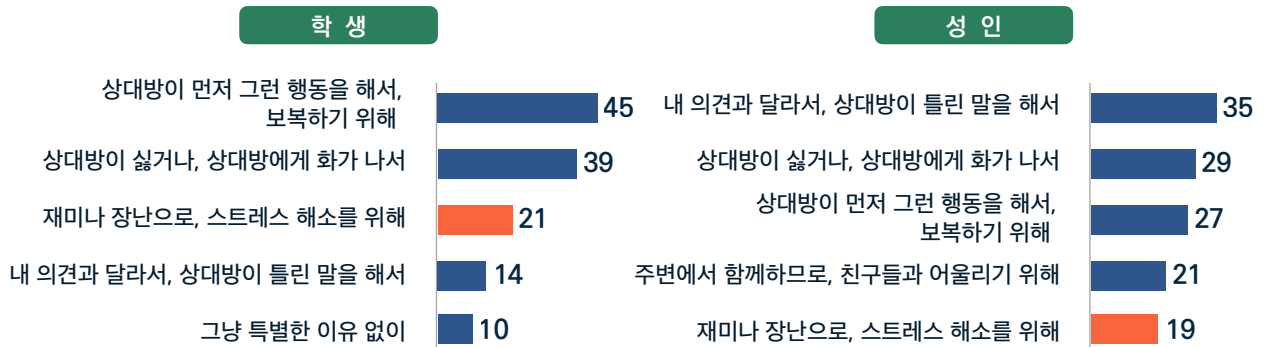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피해 성인 727명, 온라인 조사)

●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 학생은 ‘보복 심리’와 성인은 ‘반박 심리’

- 학생이 사이버 폭력 가해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에 보복하기 위해서’(45%)라는 보복 심리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됨
- 성인은 ‘내 의견과 달라서’(35%)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장난,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유는 학생과 성인 모두 각각 21%와 19%로서 사이버 폭력이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됨

[그림]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상위 5위,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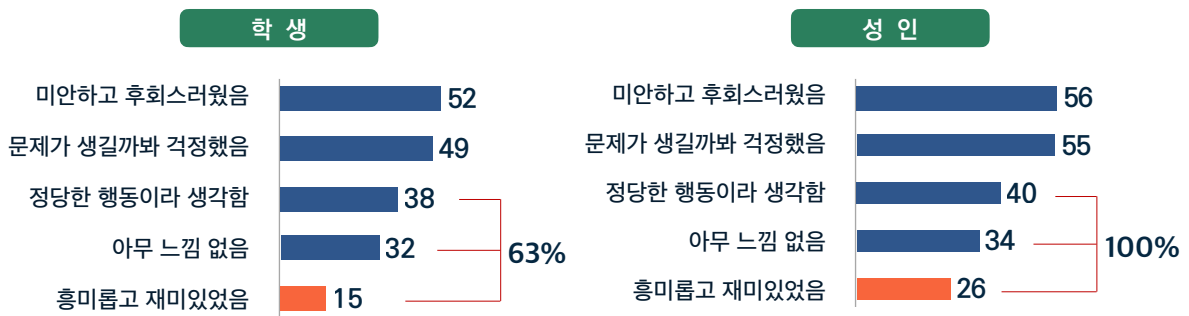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860명, 우편 조사)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가해 성인 488명, 온라인 조사)

3 사이버 폭력 가해자(성인), 4명 중 1명은 '흥미 있고 재미있다'

- 사이버 폭력 가해자 중 가해 후에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는 비율이 학생은 52%, 성인은 56%로 절반 이상임
- 가해 이후에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40% 내외로 나타남, 심지어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비율이 학생은 15%, 성인은 26%로 나타나 우려가 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가해자의 상당수가 죄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가해 후 심리(중복 응답) (%)



*자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860명, 우편 조사)

*자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가해 성인 488명, 온라인 조사)

4 부모와 대화가 적은 자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높아

- 학생 중 부모 자녀간 상호 작용과 교우 관계 신뢰도가 낮은 경우 가해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학생 중 공감 능력이 낮은 경우 사이버 폭력 가해를 한 비율이 32%이고 공감 능력이 높은 경우는 그 절반인 15%로서 공감 능력이 낮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그림]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률(대인 관계 및 심리적 요소별) (%)



*자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전국 초중고생 4,779명, 온라인 조사)

**고(高) 집단 정의: 부모 자녀 간 상호 작용/교우 관계 신뢰도별 '그렇다'(3점 또는 4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2개 이상인 집단

저(低) 집단 정의: 부모 자녀 간 상호 작용/교우 관계 신뢰도별 '그렇지 않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1개 이하인 집단

● 성인 역시 가족과 상호 작용이 낮을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높음

- 성인은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주변 관계 신뢰도가 낮은 경우 가해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사이버 폭력 가해를 한 경험이 57%이고, 공격성이 낮은 사람은 그 절반인 27%만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음

[그림]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률(대인 관계 및 심리적 요소별) (%)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온라인 조사)

**고(高) 집단 정의 : 가족 간 상호 작용/주변 관계 신뢰도별 '그렇다'(3점 또는 4점) 응답한 항목 개수가 2개 이상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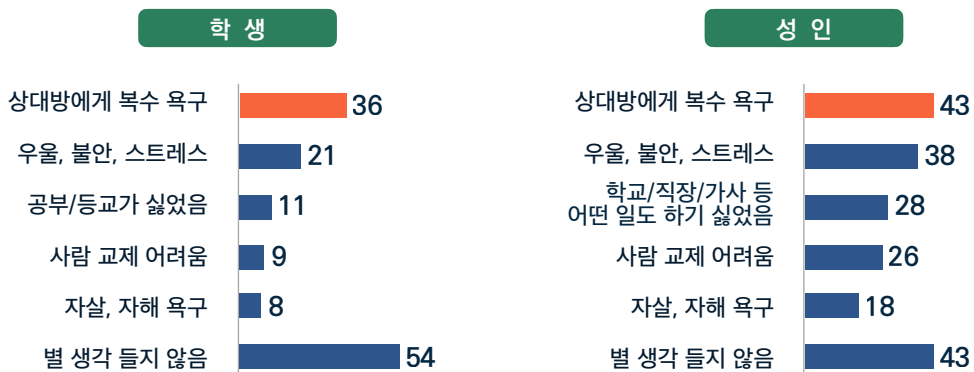
저(低) 집단 정의 : 가족 간 상호 작용/주변 관계 신뢰도별 '그렇지 않다'(1점 또는 2점)라고 응답한 항목 개수가 1개 이하인 집단

5

사이버 폭력 피해 후 복수 욕구 '학생 36%, 성인 43%'

- 학생의 36%, 성인의 43%가 사이버 폭력 피해 후 '복수 욕구'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을 겪고 있음
- '별 생각이 들지 않음'이 학생(54%)이 성인(43%)보다 높아서 성인이 더 심리적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임

[그림] 사이버 폭력 피해 후 심리(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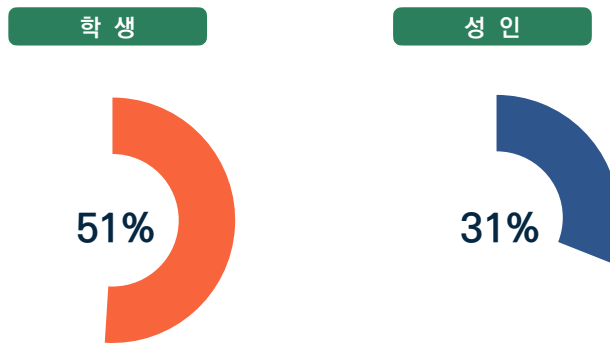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907명, 온라인 조사)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사이버 폭력 피해 성인 727명, 온라인 조사)

6 사이버 폭력 신고처 인지율, '학생 51%, 성인 31%'

- 사이버 폭력 관련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사이트 인지율은 학생은 51%, 성인은 31%인데, 사이버 폭력 경험이 더 많은 성인이 상담 및 신고처 인지율이 낮으므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함

[그림] 사이버 폭력 관련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사이트 인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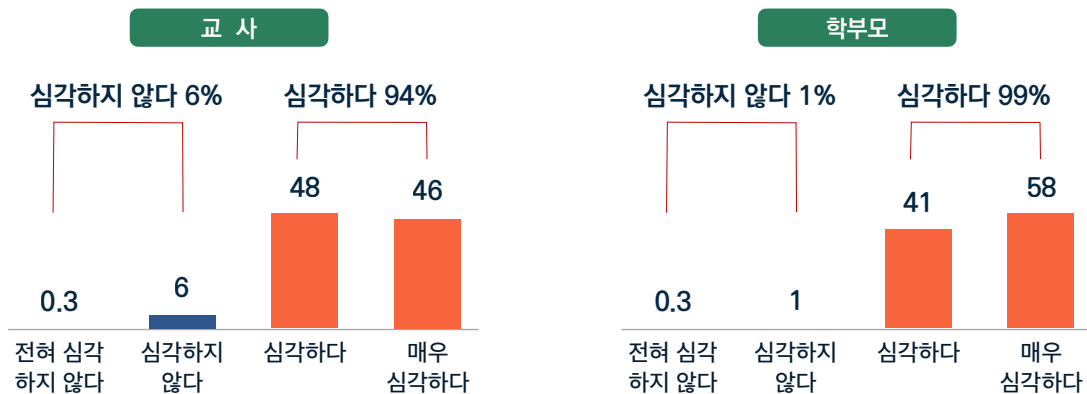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20. 1. (전국 초중고생 4,779명+성인/우편조사+성인 1,500명/온라인 조사)

7 초중고 교사, 사이버 폭력 '심각하다' 94%

-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교사는 94%가, 학부모는 99%가 각각 '심각하다'고 인식함

[그림] 사이버 폭력 심각성 (%)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19.12. (전국 초중고학생의 담임교사 324명, 학부모 2,422명, 우편 조사, 2019.10~11)

** 4점 척도로 질문함. 매우 심각+약간 심각을 합한 비율임

8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학생은 19%, 하지만 부모의 96%가 모르고 있음

- 사이버 폭력·폭행 경험률은 학생의 경우는 19%로 응답했는데, 학부모에게 자녀가 사이버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단지 4%의 학부모만 '있다'고 응답함

[그림] 학생(자녀)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학생 자신 vs 부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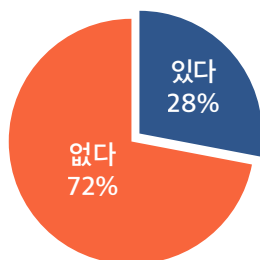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19.12
(전국 초중고학생의 담임교사 4,779명, 학부모 2,422명, 우편 조사, 2019.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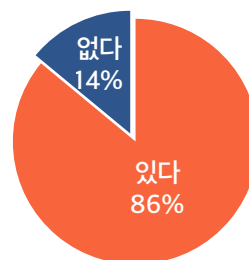
9 학부모의 86% 사이버 폭력 대응 교육 받을 '의향 있다'

- 초중고생 학부모의 28%가 사이버 폭력 대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의 86%가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사이버 폭력 대응 교육 이수 경험 (%)



[그림] 사이버 폭력 대응 교육 받을 의향(미이수자) (%)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2019.12
(전국 초중고학생의 담임교사 2,422명, 학부모 2,422명, 우편 조사, 2019.10-11)

10

IT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은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 양쪽에서 이루어진다. 사이버 세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점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억눌렀던 욕망과 감정이 여과없이 터져나온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일명 박사방, 혹은 n번방 사건)도 사이버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이버 폭력의 일종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실제로 자살하기도 한다. 사이버 폭력을 치기어린 행동 혹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일탈로 규정 짓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왜 사이버 폭력을 저지를까? 사이버 폭력 가해자의 심리 속에는 '복수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서 복수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복수심 때문에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므로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사이버 폭력 가해자 4명 중 1명은 가해 후 심리상태에 대해 흥미와 재미로 생각하고 있고, 60% 이상이 정당한 행동으로 생각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점이다. 가해자에게서 죄의식을 찾을 수 없다(보고서 5쪽).

또한 가해자를 분석해 보면, 가족(부모) 간의 관계도가 낮은 사람에게서 가해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발견된다(보고서 5~6쪽). 또한 공감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 주변 사람(친구)과 신뢰 관계가 낮은 사람에게서 가해 비율이 더 높다.

또한 교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각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피해 자기만의 성을 쌓아 그 속에서 안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낮아서 쉽게 공격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사이버 폭력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이와 관련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모와 절대적인 대화 시간 확보를 도와줘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으로써 '가정예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예배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구성원간 고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공동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대응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가 28%이고, 미이수 학부모 중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부모가 무려 86%나 되었다. 모든 학부모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교회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학부모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관련 교육을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대한민국의 선택과 필수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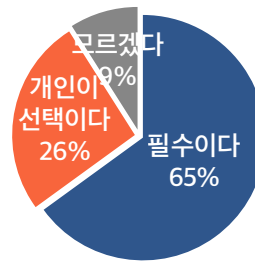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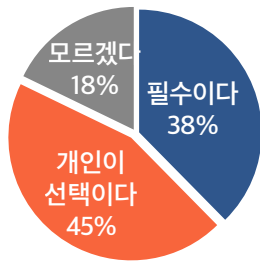
과거에는 필수적 요소였던 것이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시대에 따라 필수와 선택 요건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들여다보면 목회적 현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털리언프로'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필수와 선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1 대학교 진학, '개인의 선택이다'(45%) > '필수이다'(38%)

- 우리나라의 주된 이슈 중 하나는 학력에 대한 주제인데, 그 중 '학력·진학'과 관련해 필수와 선택의 의견을 물어 본 결과, 대학 진학에 대해 '개인의 선택이다' 45%, '필수이다' 38%로 대학 진학이 반드시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교해 고등학교 졸업에 관련해서는 '필수이다' 65%, '개인의 선택이다' 26%로 응답해 비교적 우리나라 국민은 최소 필수 학력 조건을 '고졸'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대학교 진학에 관한 의견(%)

[그림] 고등학교 졸업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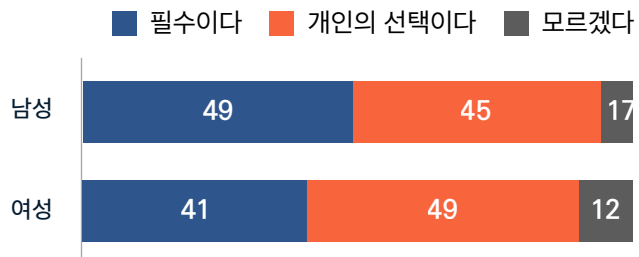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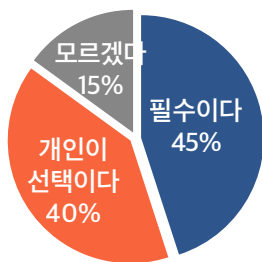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SM C&C 털리언, '대한민국의 필수와 선택', 2020.03.18(전국 14~59세 남녀 1,459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03.02.)
 **필수하다는 '반드시 필수+어느 정도 필수', '개인의 선택이다'는 '꼭 필수는 아니다+어느 정도는 선택이다'를 합산한 수치임

● 1개 이상 외국어 능력, '개인의 선택이다'(40%) > '필수이다'(45%)

- 글로벌 시대에 1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에 관한 질문에 '필수이다' 45%, '개인의 선택이다' 40%로, 1개 이상 외국어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음
- 성별로 보면 '필수'에 있어서 남성(49%)이 여성(41)보다 높게 응답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남성에게서 외국어 능력을 필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1개 이상 외국어 능력에 관한 의견 (%)

[그림] 1개 이상 외국어 능력에 관한 의견 남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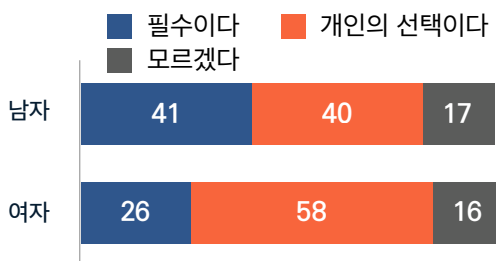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SM C&C 털리언, '대한민국의 필수와 선택', 2020.03.18(전국 14~59세 남녀 1,459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03.02.)
 **필수하다는 '반드시 필수+어느 정도 필수', '개인의 선택이다'는 '꼭 필수는 아니다+어느 정도는 선택이다'를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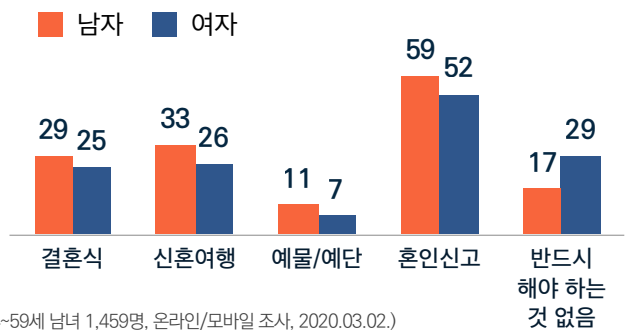
2 '결혼은 필수다', 남성 41% > 여성 26%

- 결혼에 대한 남녀의 인식은 남성은 '필수다' 41%, '개인의 선택이다' 40%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필수다' 26%, '개인이 선택이다' 58%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만약 결혼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질문한 결과,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예단, 혼인신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필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남

[그림] 결혼 필수성의 남녀 의견 (%)



[그림] 결혼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성별, 복수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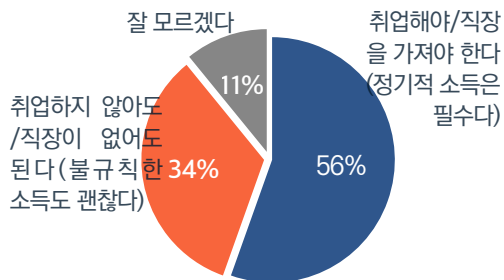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SM C&C 톨리언, '대한민국의 필수와 선택', 2020.03.18(전국 14~59세 남녀 1,459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03.02.)
 **필수하다는 '반드시 필수+어느 정도 필수', '개인의 선택이다'는 '꼭 필수는 아니다+어느 정도는 선택이다'를 합산한 수치임

● 우리 국민 10명 3명 정도는 직장·취업은 '선택'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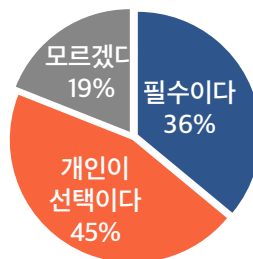
※ 2020년 대한민국에는 '일과 직장'에 대한 서로 상반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소위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동시에 공무원, 교사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직업군도 인기가 시들지 않는다.

- 직장·취업에 관해 묻은 결과, '취업하지 않아도/직장이 없어도 괜찮다(불규칙한 소득도 괜찮다)' 34%, '취업해야 한다/직장을 가져야 한다(정기적 소득은 필수다)' 56%로,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정기적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이 없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과 차량 소유에 있어서는 자동차 소유는 '필수' 36%, '선택' 45%로, 선택이 조금 높았고 자가 주택 소유는 '필수' 47%, '선택' 39%로 '필수'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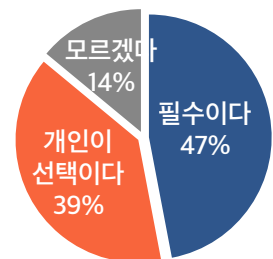
[그림] 직장·취업에 관한 의견 (%)



[그림] 자동차 소유에 관한 의견 (%)



[그림] 자가 주택 소유에 관한 의견 (%)



*자료 출처 : SM C&C 톨리언, '대한민국의 필수와 선택', 2020.03.18(전국 14~59세 남녀 1,459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03.02.)
 **필수하다는 '반드시 필수+어느 정도 필수', '개인의 선택이다'는 '꼭 필수는 아니다+어느 정도는 선택이다'를 합산한 수치임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코로나19 위험 인식 3차 조사 결과 - 중앙방역대책본부](#)

스포츠조선_2020.04.01.

“코로나19 설문, 국민 96% ‘외출 자제’...70% ‘대면 절반이하로 줄어’”

뉴스시스_2020.03.31.

“국민 64% “코로나19로 일상 절반 이상 정지”...장기화에 슬픔↑·공포”



[사라지는 임시직 일자리 실태](#)

매일경제_2020.03.29

“중소기업 42% ‘코로나19 경영난 3개월 이상 못 버틴다’”



[코로나19 휴원 휴교 기간 자녀 돌봄 조사 - 직장인 부모 대상](#)

연합뉴스_2020.04.01.

“직장인 43% ‘개학 연기된 자녀 돌봄 부모·친척에 맡긴다’”



[통계청 2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

한겨레_2020.03.31

“‘코로나 직격탄’ 생산·소비 9년만에 최악..고용 역대 최저”



[2020 아시아 부패지수 결과](#)

뉴스1_2020.03.27

“‘공수처’ 도입 점수 따...한국 청렴도16개국 중 6위, 2년연속 상승”



[무자녀 가구 인식 조사 결과](#)

뉴스시스_2020.03.30

“결혼 후 자녀 안 낳는 女..‘부부생활 중요 1위·불임 2위’”

스토리가 있는 기사



[한국 사재기 안하는 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유통 시스템](#)

조선일보_2020.03.28

“위기 둔감력? 총알배송?... 사재기 패닉 한국선 왜 없을까”



[총선 60대 이상 고령층, 4년전보다 218만명 증가!](#)

한국일보_2020.04.03

“60대 이상 유권자 1200만 돌파... 총선 ‘실버 파워’ 부상”



[코로나19 대응 관련 신학적/목회현장/교육현장 성찰의 글\(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주제별로 소개합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